

철저하고 계획된 수험관리



박 종 원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재학 중
- 2021년도 외교관후보자시험 수석합격

I. 들어가며

1. 안녕하세요, 2021년 외교원 수석합격자입니다. 진입 초기에는 물론이고 올해 3순 기간에도 합격수기를 종종 찾아 읽으면서 도움을 받고 힘을 얻은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수험생활에 대한 기억이 더 열어지기 전에 수기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2. 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마다 장단점이 다르고 잘 맞는 공부방식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의 수기 역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취할 부분은 취하시되 버릴 부분은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II. 시기별 공부 내용

1. 2018년 8월 ~ 2018년 12월 : 진입 초기

진입 직후 학교 열람실에서 혼자 공부하다보니 어떤 식으로 커리를 짜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진도를 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 풀어본 피셋이 세 과목 모두 40점대가 나와서 하루에 4시간 정도는 피셋에 투자

하고 나머지 시간에 2차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이때 피셋은 기출문제 풀고 오답노트를 만들었고, 2차과목들은 인강을 듣고 복습했습니다. 모든 과목이 굉장히 낯설어서 예비순환 강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2. 2019년 1월 ~ 2019년 6월 : 첫 1차시험 불합격

2019년 1차시험에 불합격하였지만 2차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휴학하고 2차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경제학과 국제법 1순환을 들으며 하루하루 좌절을 맛봤고 막막해서 스테디를 만들었습니다. 5월부터 3명이 모여서 국제법 기출문제 답안작성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만든 스테디를 2020년 2차시험 직전까지 꾸준히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 2019년 7월 ~ 2019년 12월 : 2학기 학교 수업과 병행

- (1) 이 기간에 각 과목별로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학이 너무 어려웠는데 이 기간에 미거시 연습책을 1.5회독 정도 했습니다. 처음 2순환 들을 때에는 수업 때 다룬 문제라도 다 푼다는 마음으로 했고, 그 이후에도 경제학이 너무 어렵고 문제가 안 풀려서 2019년에 새로 진행된 경제학 1순환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이때 미거시 연습책의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국제경제학도 여전히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1순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꼼꼼하게 복습하였습니다.
- (2)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은 이때 단권화를 시

작했습니다. 답안지를 쓸 때마다 이 책 저 책 찾아보는 게 귀찮기도 했고, 언젠가 3순 기간에 볼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단권화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국제정치학은 각종 단행본들을 읽고 정리했고 국제법은 국제법론과 신국제법강의를 읽고 정리했습니다.

- (3) 2019년 10월부터는 별도의 쉬는 날을 정해두지 않고 매일 공부했습니다. 정 힘들 때 일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는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학교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PSAT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까지 공부한 게 별로 없다는 조바심이 들어서 체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해보자는 마음으로 했었습니다.

4. 2020년 1월 ~ 2020년 8월 : 첫 1차합격 및 2차 불합격

- (1) 2월 말에 PSAT이 연기되어서 바로 스테디원들과 전년도 국제경제학 3순환 인강을 같이 들으며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년도 경제학 3순환 인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 답안지 특강을 처음으로 듣기 시작하였는데, 갑자기 PSAT 일정이 나와서 3주 정도 피셋에 다시 몰두했습니다.
- (2) 2020년에는 PSAT 점수를 넉넉히 받아서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대비 경제학 3순환과 국제법 답안지 특강을 들었습니다. 국제정치학은 새로운 단행본들을 읽거나 기존 단행본들을 다시 읽으면서 단권화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국제법은 3순환을 들으면서 단권화 자료를 보충했습니다.

(3) 7월부터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3과목을 모두 공부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오전에는 다른 강사분들의 경제학 3순환 모의고사를 2시간 맞춰서 풀고, 오후에는 국제법 단권화 자료 보충 및 암기, 저녁에는 국제정치학 단권화 자료 보충 및 암기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5. 2020년 9월 ~ 2021년 2월 : 부족한 부분 보충 및 두 번째 1차합격

(1) 20년 국제법 1문에서 20점 이상을 백지로 내서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3주 정도 쉬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두자 싶어서 여전히 정리가 잘 되지 않았던 국제경제학 1순환을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산-왕규호 저 미시경제학 교과서와 김경수-박대근 저 거시경제학 교과서를 정독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디를 통해 미시거시 연습책과 국제경제학 모의고사의 zip을 전부 풀었습니다.

(2) 국제정치학은 외교사와 국제정치경제를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는 국제법 답안지 특강을 다시 듣고 1순환을 인강으로 들으면서 국제법 단권화 자료를 보충했습니다. 경제법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6. 2021년 3월 ~ 2021년 7월 : 2차합격

(1) PSAT이후 ~ 경제학 3순환 개강 전

PSAT을 보고 경제학 3순환 수강을 시작하기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 정도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침 새로 출간된 신국제법강의 11권을 정독하고 국제법 단권화 자료를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리

고 국제법 답안지특강을 시작하였습니다.

(2) 3월 18일 ~ 4월 10일 : 경제학 3순환 + (국제법)

오전에는 경제학 3순환 모의고사를 푸는 스테디를 했고 오후에는 인강을 듣고 저녁에는 step 3 문제를 풀며 그날 강의를 복습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월~목 정도는 경제학에 올인하고 목~일에는 경제학 60%, 국제법 40%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하였습니다.

(3) 4월 12일 ~ 4월 30일 : 국제정치학 + (국제법 답특, 국제경제학 기출 스테디)

가. 국제정치학 3순환은 따로 수강하지 않고 기출문제 답안작성 스테디에 참여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스스로 단행본들을 읽고 단권화 자료를 보충하였습니다. 20년에는 2시간 동안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떻게든 2시간 내에 답안을 쓰는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나. 오전에는 경제학 3순환 모의고사를 풀고 점심 이후에는 그날 국제정치 스테디 때 풀 문제와 관련된 단권화 자료를 암기했습니다. 저녁 먹고 국정 스테디를 했고 이후 자기 전까지 그날 폰 국정 기출문제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 5월 : 국제법 + (국제정치학, 경제학, 국제경제학 기출 스테디, 통합논술 기출 스테디)

가. 5월에는 국제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평일 오전 2시간은 경제학을, 밤 2시간 정도는 국제정치학을, 일요일에는 행정고시 국제경제학 기출문제 스테디를 했습니다. 아

침에 경제학 3순환 모의고사 또는 step 3 복습을 2시간 하고, 밤 11시 정도까지는 국제법을 공부하고 새벽 1시 정도까지는 국제정치학 단권화 자료를 암기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정리해둔 국제법 단권화 자료를 프린트해서 기억에 잘 남게 형광펜 등을 이용해서 표시하고 큰 체계부터 본격적으로 암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3순 기간에는 본격적인 암기가 처음이어서 많이 벅했는데 올해는 두 번째라 그런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김 저와 정 저를 반복적으로 발췌독하면서 단권화 자료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3순환 모의고사는 반드시 시간 맞춰서 풀었고 답안지 특강도 꾸준히 수강했습니다.

다. 이 시기 국제정치학도 단권화 자료를 프린트하여 본격적인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론 3일, 이슈 2일, 외교사 3일, 국제정치경제 2일 이런 식으로 2주 주기를 잡고 5월 동안 두 번 반복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밀린 적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은 다음 주기로 미루거나 주말을 이용해 보충했습니다.

(5) 6월 4일 ~ 6월 14일 : 국제경제학 3순환 + (경제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답특)

가. 국제경제학 3순환 모의고사로 하루를 시작했고 인강 수강 및 복습을 뒤이어 했습니다.

나. 이때 경제법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GATT 1, 3조 / 11조, 20조 / TBT, SPS / AD, SCM / SG, GATS, DSU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1주일 동안 전 범위를 암기했습니다. 경제법 암기를 한 번 돌린 이후에는 다른 강사분의 국제법 3순환 모의고사를 구해서 몇 개 골라서 시간 맞춰서 풀었습니다.

다. 그날 할당된 경제법 암기를 마친 뒤 국제정치학은 5월과 마찬가지로 이론 이슈 외교사 국제정치경제 순서로 단권화자료를 암기했습니다.

(6) 6월 15일 ~ 7월 14일 : 하루에 두 과목

가. 마지막 기간에는 최대한 골고루 공부하기 위해서 하루를 오후 4, 5시를 기준으로 나누어 두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면 15일에는 (법, 정치), 16일에는 (경제, 법), 17일에는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각 과목도 크게 6, 7부분으로 나누어서 전 범위를 빠트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경제학은 미시1, 미시2, 거시1, 거시2, 무역론, 금융론으로, 국제법은 책임법과 조약법, 관할권과 면제, 4부, 5부, 연원 등 기타, 경제법으로, 국제정치학은 이론, 안보론, 주요이슈, 기타이슈, 국제정치경제, 외교사1, 외교사2로 나누었습니다.

나. 경제학은 여러 문제집들에서 기존에 표시해둔 문제들과 선별해 놓은 모의고사들을 다시 풀었습니다. 국제정치학과 국제법은 단권화 자료를 반복해서 암기하고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등을 조합해서 100점짜리 답안을 2시간 내에 작성하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Ⅲ. 과목별 공부 내용

1. 제1차시험

(1) 헌법

제1차시험 준비기간이 되면 인강을 빠르게 들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상기하고, 이후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2) 언어논리

가. 2019년과 달리 2020년, 2021년에는 언어 논리를 주력과목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건 기출문제 유형 분류, 강화약화 매뉴얼 다회독, 헛갈리는 문제 과감히 넘기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먼저 기출분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문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일치부합, 논리퀴즈, 빈칸채우기, 비교대조, 강화약화, 밑줄에 해당하는 것 찾기, 확률, 논리적 관계, 견해대화 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유형별로 제시문의 구성, 틀린 선택지를 만드는 방법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는 제 사고과정을 풀어서 쓰고 어디서 잘못되어 오답을 고른 것인지 분석했습니다.

다. 이전에는 비교적 감에 의존하여 풀 경우가 많았는데 강화약화 매뉴얼을 여러번 공부하고 이런 점을 많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강화약화·논증평가 유형의 문제는 거의 공식처럼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라. 자료, 상황과 달리 언어는 이상하게 풀던 문제를 빠르게 포기하고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시문을 읽는 데 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번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언어에서도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문제 번호에 크게 표시해두고 과감히 넘어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3) 자료해석

자료해석도 기본적으로 언어논리와 마찬가지로 기출분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매칭형, 상대비, 가중평균, 지수, 표 조작 및 해석, 각주 활용, 순위자료 등

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답 만드는 방식, 제 사고과정, 계산과정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4) 상황판단

상황판단은 지금까지도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입니다. 다만 21년에는 난이도가 낮았고 찍은 문제들도 몇 개 맞아서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상황판단은 기본적으로 10문제를 버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했고, 범주문 문제를 먼저 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 퀴즈 문제를 풀었습니다. 퀴즈형은 아무리 분석해도 실력이 딱히 늘지 않아서 범주문과 단순한 수리계산형을 다 맞추고, 남은 시간에 풀만한 퀴즈형을 최대한 많이 푼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2. 제2차시험

(1) 경제학, 국제경제학 : 2020년 85.66점 / 2021년 81점

가. 경제학은 학원 커리큘럼을 따랐고 연습책은 2.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2순환 때에는 수업시간에 다루는 문제들만 풀었고, 그 이후에 1순환을 다시 들으면서 모든 문제들을 다 풀었고, 2020년 2차 끝나고 연습책 신판을 사서 한 번씩 더 풀었습니다. 2020년 2차시험 전에는 2019년 대비 트리니티 완성하기, 2020년 대비 정선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순환 기간에는 step 3를 전체 문제 한 번, 중요하거나 어렵다고 표시해둔 문제들은 두세번 정도 더 풀었고 2020년 대비 정선문제집 중 표시해둔 문제들을 풀었습니다.

나. 국제경제학은 연습책을 풀지 않고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과 국제경제학 모의고사의

zip을 여러번 풀었습니다. 공부하면서 뭔가 같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든 적은 별로 없었는데 가장 크게 해소되는 느낌을 받은 게 이때였습니다.

다. 저에게도 경제학이 처음에는 가장 어렵고 낯선 과목이었습니다. 강의 들을 때에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문제를 푸는 건 전혀 다른 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노트에 따로 정리하는 것도 시도하였는데 너무 비효율적이고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결국 2순환을 들으면서 일단 연습책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해설을 보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연습책을 한 번 풀고 그 이후에 1순환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연습책을 한 번 더 풀 이후에 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론공부와 문제풀이를 별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론적인 이해도 같이 보충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 많은 문제집과 기출문제들을 풀면서 시험 직전에 꼭 봐야할 문제들을 꾸준히 표시해 두었습니다. 연습책, 트리니티 완성하기, 정선문제집, 미거시 step 3, 국제경제학 실전 문제집, 국제경제학 모의고사의 zip 등 풀 문제집에 다시 안 봐도 되는 문제, 해설 한 번 정도 다시 보면 되는 문제, 반드시 다시 풀어야 할 문제 등으로 표시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답안지에 실제 답안 형식으로 정리해두었습니다. 2020년 2문과 2021년 1문의 1이 이렇게 정리해둔 문제와 매우 유사하게 나와서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2) 국제정치학 : 60 / 79.33

가. 단행본들을 꽤 많이 읽고 단권화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단권화 자료는 책별로 만들지 않고 이론, 이슈, 국제정치경제, 외교사로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단행본들은 반복적으로 읽고 논문들도 찾아 읽으면서 단권화자료를 꾸준히 보충하고 다들었습니다. 단권화라는 게 잘못하면 책이나 논문의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적는 행위가 되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차를 체계적으로 잡고 필요한 내용만을 넣고자 노력했습니다.

나. 2021년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스터디를 통해서 2시간 맞춰서 답안 작성을 충분히 연습하고, 스터디 이후에 스터디원들의 답안과 코멘트들을 고려하여 목차와 핵심 내용들을 가지고 나름의 최고답안을 만든 것입니다. 2020년까지는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듯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전부 쏟아내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2차답안은 상당히 달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 국제법 : 49 / 65

가. 국제법론과 신국제법강의를 수차례 반복해서 읽었고, 강의를 통해 법적 논리와 법학 답안지 작성법 등을 배웠습니다. 답안지 특강도 꾸준히 수강하여 답안지 작성하는 감도 앎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나. 국제법도 기본적으로 단권화를 바탕으로 공부했습니다. 1년 정도는 국제법론을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국제법론과 신국제법강의, 판례 자료들을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단권화를 시작했습니다. 기

본적으로 신국제법강의 목차를 따랐고 관련 조문, 교과서 설명, 판례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같은 것들이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단권화 자료의 목차 간 위계에 특별히 신경썼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교과서 두 권으로 단권화 자료를 만든 뒤 다른 책, 교과서, 강의자료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 국제법도 마찬가지로 시간 잡고 답안지 쓰는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최소한 목차를 잡는 것까지만이라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통합논술 : (53, 53.5) / (69.5, 83.5)

2020년까지는 나머지 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면 통논은 자연스럽게 잘 써지겠지라는 생각으로 2020년 3순 기간에 통논 답안 작성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논은 다른 2차 과목과는 달리 많은 제시문이 주어지고

문제 수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답안 작성 측면에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전개년 기출문제를 주말마다 시간 맞춰서 풀었습니다. 2시간동안 실전처럼 답안을 작성한 뒤 같이 쓴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V. 나가며

쓰다보니 정말 긴 글이 되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해본 결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시 한 번 제 수기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시도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험생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